

구현수 경력

1993 (32세)

이메일 kms19609999@naver.com | 휴대폰 010-2445-7512 | 전화번호 010-2445-7512

주소 (30063) 세종 마음으로



경력

이노베이션티(주) 재직중

총 9년 4개월

학력

육군3사관학교

대학교(4년) 졸업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포트폴리오

-

간략 소개

개발자로서 업무를 시작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워크와 리더십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최근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완벽한 기획은 없지만 최선을 다한 기획이 밑바탕이 되고

리더의 리더십 밑에서 팀원들의 팀워크가 조화되어야 각각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팀장으로서 업무를 하게된다면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팀원이라면 내업무를 진행하며 팀장을 보조하여 프로젝트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스킬

Java

JavaScript

Spring Framework

Spring Framework

Spring Boot

MySQL

Oracle

jQuery

CentOS

JSP

Bootstrap

Ajax

MyBatis

HTML5

Eclipse

경력 총 9년 4개월

2022.05 ~ 재직중

이노베이션티(주) 주임/팀원 2년차 · 웹개발

□ 구청, 공공관들

- 이용중인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 추가적인 개발을 통한 기능추가 및 최적화진행

- 서버 이용 및 상태에 대한 점검진행

□ 민간기업

- 의뢰된 웹개발 프로젝트 진행

* Spring 또는 SpringBoot 기반으로 java를 이용한 Back 구성

* DB구성

* jsp, javaScript, JQuery 등을 이용한 Front 구성
* 웹 프로젝트 서버 배포(리눅스 기반, *.war 파일 기준 진행)

2015.03 ~ 2021.03

 육군본부

6년 1개월

통신중대장으로 문서 및 장비보완을 맡아 진행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파악 및 유지보수

학력 대학교(4년) 졸업

졸업

육군3사관학교대학교(4년제) 정보공학과

주/야간 주간

자기소개서

구현수의 자소서

군 시절 통신중대장 직책을 수행할 때 연대장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연대 홈페이지를 네이버처럼 꾸며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웹페이지의 소스코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았던 소스코드는 띄어쓰기, 엔터가 없이 모든 코드를 붙여서 써놓은 코드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감이 하나도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으로 코드를 보고 웹페이지 화면을 바꿀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jpg, .png 등 이미지 파일을 유추할 수 있는 글자를 보고 바꾸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지만 처음 접해보는 코드들 사이에서 이것을 바꿔 원하는 사진으로
바꾸는 것에만 3~4일이 걸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월요일에 받은 지시를 목요일에 끝냈는데 그것도 사진만 변경된 사항이라 저의 평가가 깎이는 결과로 다가왔지만 우울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웹사이트 모양을 변경하는게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정도 밖에 할 수 없다는게 싫어져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WEB 개발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마침 당시 기억났던 것은 소위일 때 처음 뵈 연대장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열정으로 군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하던 동기에게 연대장님은
'그게 정말 너의 꿈이라면 군에서 나가라' 였습니다. 당시에는 어안이 병병했지만, 중위가 되었을 때부터 공감이 갔습니다.

이래서 나가라는 거였구나... 군 생활을 계속하면 자신의 꿈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게 되거나 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 꿈을
펼칠 수가 없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대위까지의 군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개발자를 알아보다 양성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전역 후 4개월 차부터 개발을 배우던 인재개발원에 합격하여 개발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공부 이후에는 바로 취업하고 웹 개발자로서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중 기억나는 것은 원자력 안전재단에서의 프로젝트로
처음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NSIS시스템 3차 통합팀에 합류하여 통합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기억나는 이유는 규모도 컸지만 피해야 할 사항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필터링이 없이 모두 수용되어 작업이 넘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운영할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아 후임과 함께 시간을 날리던 경험도 있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공통을 먼저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직접 겪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전천후로 일을 할 수있는 풀 스택 개발자가 되고 위에 겪었던 일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